

거짓말

*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기에 조용한 그는 인기가 많았다. 솔직히 그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했고, 사람들은 그를 옆에 두고 실재 없이 떠돌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화 속에서 은연 중에 요청받았던 적당한 대답을 꼭 해주었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머쓱하거나 민망하지 않았다. 그와 대화를 마친 사람들은 식후 박하사탕을 입에 문 듯 마음의 상쾌함을 안고 자리를 떠났다.

*

그는 얼마 전에 꽤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하여 나름의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대로 ‘꽤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을까, 그가 하는 말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사실을.

물론 진실에 얼룩을 뿌리고 훼손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었다. 그가 내뱉는 말의 결과는 그저 늘 거짓이었는데, 이 사실은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세간의 평판과 관계에서의 편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만 한 덕분에 편하게 살게 된 것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믿고 있는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는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여하튼 좋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은 생각은 추오도 없었다. 그랬다면 그가 그렇게 과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진실로 인해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는 게 몹시 성가셨다. 단지 귀찮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계속된 것이다. 그런 상태를 의식하지 못했다면 그는 참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불현듯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때문에 스스로가 거북해졌다.

*

생각할수록 언짢은 사실로 그는 괴로웠다. 말수가 적은 그에게 거짓말을 고치는 일은 쉬운 듯 했다. 그러나 아주 오래된 습관이 그렇듯 도무지 고쳐지지 않았다.

그는 그의 말 중 진실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그가 꺼내 문장으로 완성한 한마디가 아니라 거의 입밖으로 나왔다고 할 수조차 없는 웅얼거림, 혹은 우연히 나온 추임새따위 뿐이었다. 예를 들면, 그는 체리가 먹고 싶어 ‘체리, 체리, 체리’라고 읊조린다. ‘체리, 체리, 체리’는 그의 진실이다. 과일가게에 도착하여 그는 ‘오렌지 주세요.’라고 말한다. ‘오렌지 주세요.’는 그의 거짓말이다. 과일가게에 체리가 없었으므로 그는 어떤 것도 사고 싶지 않았다. 몸을 돌려 가게에서 나올 수 없어서, 즉, 본인의 진실을 관철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만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력하게 거짓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던 또 다른 이유는, 침뽀리처럼 쑥쑥 자란 거짓말에 뒤덮힌 진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도통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그는 체리가 먹고 싶어 ‘체리, 체리, 체리’라고 읊조린다. ‘체리, 체리, 체리’는 그의 진실이다. 과일가게에 도착하여 그는 ‘체리 주세요.’라고 말한다. ‘체리 주세요’는 그의 거짓말이다. 과일가게에 체리가 있었지만 그는 체리가 더 이상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 가게에 눌러앉아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즉, 본인의 진실을 인지하는 일이 도무지 불가능해서 그는 늘 그렇듯 거짓말을 하고 만다. 이렇듯, 거의 모든 생활에서 그는 ‘얼떨결의 진실’로부터 ‘결과적인 거짓말’로 향하는 비슷한 유형의 말하기를 반복했는데 가끔 ‘얼떨결의 진실’을 생각할 뿐, 결과는 항상 거짓말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와 버리는 거짓말을 막기 위해서 입을 단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다면 그가 무심코 뱉곤 하는 진실마저 사라질까 두려웠다.

‘체리, 체리, 체리...’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그것은 거짓말이 가릴 수 없었던, 드물게 포착된 진실이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체리, 체리, 체리’와 같은 말을 하고 싶었고, 말이 아니더라도, 이상한 표현이지만 어떻게든 ‘체리, 체리, 체리’하고 싶었다.

*

그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체리, 체리, 체리’를 발견했다. 번역이 온전치 않던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을 만든 사람!”

조지 스미스(78)씨는 매일 점토를 굴려 구형(球形)의 공을 만듭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이 행동을 평생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을 만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구(球)를 만들었다고요? 이것 참 영광이네요. 물리적으로 완벽한 구는 관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냥 둥그란 공은 만들 수 있지만 완벽한 구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제가 완벽한 구를 만들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제가 완벽한 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매우 애석할 것 같군요.’

그는 한 문장에 밑줄을 그었다.

*

그는 어쩌다가 꽤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하여 나름의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대로 ‘꽤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을까, 그가 하는 말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사실을. 그런 상태를 의식하지 못했다면 그는 참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 그 상황 속에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기에 조용한 그는 여전히 인기가 많다. 사람들은 그를 옆에 두고 실재 없이 떠든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화 속에서 은연 중에 요청받았던 적당한 대답을 꼭 해주었기 때문에 말이 많은 사람들은 머쓱하거나 민망하지 않다. 그와 대화를 마친 사람들은 식후 박하사탕을 입에 문 듯 마음의 상쾌함을 안고 자리를 떠난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한 덩어리¹에 시선을 고정하고 유심히 바라본다. 썩난 감자갈기도, 쓰다 만 지우개갈기도, 배설물갈기도 한 그것이 자신이 생성한 것임을 되새기고서, 그는 안도한다.

¹ 덩어리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그와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 (이를테면, 주머니 속에서 꺼낸 것일까)

*

His popularity was indebted to his ability to listen, as many people prefer speaking to listening. Honestly, it didn't matter if he was listening to anyone; he was just quiet, and people chatted nonstop with him by their side. What was truly remarkable was that he always provided the right responses when requested, seamlessly blending in with the conversation's background so that his talkative companions never felt awkward or embarrassed. Those who conversed with him left feeling refreshed like they might after popping a mint after a meal.

*

Something significant had recently come to his attention, a revelation he couldn't ignore. It was a "pretty big deal," so to speak, and it caused him to contemplate its implications. It was a realization that everything he said was, in fact, a lie.

It's worth noting that he never spread lies to sabotage or undermine the truth. It's just that the outcomes of all his utterances happened to be lies. Ironically, this seeming negative trait never affected the quality of his social life. In fact, it even helped his reputation, lubricating his socializing skills. It may even be fitting to say that he lied to make his life easier. Regardless of the actual truths he believed in, he always said what sounded and looked good - which was a good thing, in a way.

However, he never had any intention of actively lying for the purpose of gaining popularity. In fact, he was quite reserved, which suggests that he didn't crave the spotlight. The fact that telling the truth can have consequences didn't sit well with him. It was this dilemma that led him to continue lying. And it would have been a comfortable life, had he not grown conscious of his habits. Now, he knew what he knew and became very uncomfortable.

*

The more he thought about it, the more it bothered him. Being a man of few words, it seemed reasonable for him to correct the lie, but as is often the case with very old habits, it stuck.

He examined his speech habits thoroughly to see if they held any truth. However, he realized that the only honest expressions that escaped his lips were not fully-formed sentences: they were either mere mumblings or just verbal sounds of affirmation. For example, he would mutter "cherry, cherry, cherry" when he craved cherry. In this case, "cherry, cherry, cherry" was his truth. When he reached the fruit stand and found no cherries, he asked for an orange by saying, "I'll have an orange, please." This, however, was a lie. He didn't really want anything else. He only asked for an orange because he didn't want to return home empty-handed. He ended up lying because he couldn't push through with his truth.

Another reason why he was helplessly compelled to continue lying was that he couldn't remember what the truth looked like, buried under the pile of lies that had grown like an arrowroot. Suppose they had cherries at the fruit stand in the previous example. Upon arriving at the stand, suppose he said "Give me a pack of cherries, please." although he was no longer certain if he wanted them. That would be a lie. In this case, he lied simply because he couldn't spend an indefinite amount of time at the store, pondering what his inner truth was. Thus he landed on the lying island again, repeating his lifetime pattern of going from "interim truths" to "consequential lies."

He fantasized about closing his mouth for good to stop the lies from ever spilling out, but he feared that doing so would cause him to lose the random truths he occasionally blurted out.

"Cherry, cherry, cherry."

This was a rare, unmasked truth that he longed to express, even if it wasn't necessarily in words. He yearned to say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cherry, cherry, cherry," more often than he actually did. He even yearned to live "cherry, cherry, cherry," if that makes any sense.

*

One day, he found "cherry, cherry, cherry" in the most unexpected of places. Here's how the story goes in a book that was poorly translated.

The man who made the most balls in the world!

Meet George Smith, a 78-year-old man who spends his days rolling clay into spherical balls, a skill he has been perfecting since he was just 12 years old. When asked if he had indeed made the most balls in the world, George had this to say:

"I've made the most spheres in the world? That's quite an honor. Did you know that a physically perfect sphere only exists as an idea? You can make a round ball, but a perfect sphere is not a realistic possibility. Of course, it's a shame that I can't make a perfect sphere, but it would be very sad if I did."

He underlined a sentence or two.

*

He did recently stumble upon an important realization. It was indeed a pretty big deal - the kind you can't just turn a blind eye to. How could he? Everything he said was a lie! He could have led a happy life if he hadn't stumbled on this revelation. But he did. And he cannot fix it. The only option for him is to accept the hand he's dealt and keep on living.

Being reserved with his words, he remains to be popular as most people preferred to talk than listen. People constantly sought his company and he never failed to give them the right answers they needed, leaving them feeling refreshed and comfortable. When he was alone, he would fix his gaze on a mass, examining it closely. It resembles a potato with a sprout, a used eraser, or even fecal matter. But as he recognized the object to be his own creation, he felt a sense of relief.